

# 신발수출 세계3위 위태

## 브라질 · 인도네시아 약진 ... 수입선 전환 급증

우리나라의 대미신발 수출이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부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93년 제2위 수출국자리를 브라질에 내준데 이어 94년중 인도네시아에 3위자리마저 내줄 전망이다.

미상무부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93년에 92년보다 15.3%가 증가한 117억1500만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나 93년 우리나라의 대미 신발수출은 10억5300만달러로 92년에 비해 31%가 감소, 대미수출국중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.

또 대만도 92년보다 30.9%가 감소한 5억8200만달러에 그쳐 두번째로 감소폭이 컸으며 고급품 수출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도 3.2%가 감소한 7억6천만달러에 그쳤다.

이에비해 중국은 92년보다 32.8%가 증가한 45억1900만달러에 달해 최대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혔고 브라질도 92년의 11억1100만달러보다 27.6%가 증가한 14억1800만달러에 달해 우리나라를 제치고 제2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.

또 인도네시아도 92년보다 25.9%가 증가한 8억3600만달러에 달해 우리나라는 제3위 자리마저도 94년중 인도네시아에 넘겨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.

이와관련, 최근 미국의 리복사는 한국의 원가상승을 감안, 94년말부터 혁제운동화 조달을 현재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바이어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외국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이외에도 한국의 공장용지 구득난, 신발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첨단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도 대한수입 감축의 이유로 들고있어 이 부문에 대한 개선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이같은 수출부진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이 91년 20.8%(19억8700만달러)에서 92년 15%(15억2700만달러), 93년 9.4%(10억5400만달러) 등으로 급속히 하락했고 대만도 시장점유율이 91년 12.2%에서 92년 8.3%, 93년 5.2%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 중국은 91년 26.5%에서 92년 33.5%, 93년 40.4%등으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브라질은 91년 10.2%에서 92년 10.9%, 93년 12.7%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투자진출이 많은 인도네시아도 91년 4.3%에서 92년 6.5%, 93년 7.5%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4/6/13>